

사도 바울의 궤기 대회

Daniel Wilson 목사님 2025년 12월 14일 오후예배

본문: 에베소서 1-3장

서론

여러분, 궤기 대회(Pep rally)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질랜드에서는 그리 익숙하지 않지만, 제가 자란 곳에서는 아주 흔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한 흥경기를 앞두고 전교 응원 집회를 엽니다. 목적은 단 하나, 교사와 학생 모두가 다가올 경기를 위해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정팀이 도착하면, 홈 관중의 압도적인 함성을 듣게 되지요. 궤기 대회는 모두를 그렇게 달아오르게 해서, 막상 경기 시간이 되면 관중 전체가 마치 선수처럼 뛰어들 기세가 되곤 했습니다. 이 집회는 교사나 코치, 혹은 팀의 핵심 선수가 이끌며, 과거의 승리를 상기시키고, 곧 맞붙을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중에게 승리를 향한 절규를 촉구하죠.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등 뒤에 거대한 지지가 있는 것을 아는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라면 더 멀리 뛰고, 더 세게 부딪치고, 더 큰 고통도 참아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원이 그들을 다르게 만듭니다.

저는 에베소서가 거의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궤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은 여러 모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과 연합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지요. 하지만 솔직히, 매뉴얼은 그리 재미있지 않습니다.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이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지루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책은 다릅니다! 특히 **1-3장**은 강력한 선언과 송영(doxology)으로 가득 차 있어, 읽는 이의 가슴을 진짜로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사실 **1절부터 3장까지** 세 장을 전부 읽어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은 **1장만** 읽기로 했습니다.

이 흥분을 직접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일부러 지금까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읽어 드리려 합니다. 궤기 대회에서처럼, 어떤 대목은 우렁차게, 어떤 대목은 속삭이듯 낮게 그 감정과 함을 살려 읽겠습니다. 따라오시기 힘들 수도 있으니, 그냥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봉독)

이제 **1장**의 힘이 들리셨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능력에 가슴 벅차게 하시려 했다고 믿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우리를 경기에 뛰기 좋도록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을 경주, 권투,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첫 **3장**이 그 모두를

준비시킵니다! 죄와 부패와 자기중심과 맞서 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서로를 위해 살고 죽도록 우리를 달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뜻을 은혜로 드러내어, 믿음과 성김으로 들뜬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 흥분을 일으키는 강력한 아이디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바울은 그 첫 두 절에서 이미 그것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그 네 가지를 네 가지 대지로 살핍니다.

1. 하나님의 뜻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
3. 세상과 육의 대적
4.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 배경을 간단히 짚겠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쓴 개인 편지를 읽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것이 아내에게 쓴 건지 교회 사무관사에게 쓴 건지 아는 것은 내용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신자가 다르면 표현과 내용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몇 분 정도는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서신의 저자가 바울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긴 하나, 여기서 장황히 반복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큼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선 수신자로 두었지만, 소아시아 여러 교회가 함께 읽을 순환서신의 성격을 띠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신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내용은 보편 교회에 유익합니다.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탁월한 적용을 가능케 합니다. 이 편지는 교회를 위한 편지입니다! 개인, 자녀, 종(직원), 상전(고용주/권위자), 남편/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룹니다. 만약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면, 갈라디아서·에베소서·빌립보서·골로새서는 회중서신이라 할 만합니다. 주님의 회중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주제들로 돌아갑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두 절에 네 가지 주제가 응축돼 있습니다.

I. 하나님의 뜻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짧은 문장에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 명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씁니다. 이 말은 이 서신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신의 교회가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편지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택하심’의 사상은 에베소서, 특히 **1-2**장에 아주 강력하게 흐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의 능력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려 가던 길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 완전히 뒤집힌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뜻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뜻, 반역자를 사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누구보다 바울이 증언하기에 합당합니다. 이 서신은 그 뜻이 우리의 구원과 위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II.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

다음으로 바울은 수신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성도’란 깨끗하고 거룩한 자를 뜻합니다. 제사로 죄책이 제거되고, 오염에서 씻김 받아,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가리키는 말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 곧 죄의 더러움에서 씻겨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을 지칭합니다. 이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 덧붙이는데, 여기서 ‘신실’은 믿음을 가진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이 정체성을 **1-3**장에서 수십 가지로 펼쳐 보입니다.

미국 스포츠 영화에서 선수들이 원형으로 모여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지?”

그러면 다 함께 팀 이름을 연호하지요. 바울은 허세 없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 사실에 가슴이 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값 주고 사 주신 하나님의 승리한 자녀입니다. 영원한 상속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습니까? 구주와 주로 예수께 믿음을 두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초기 장들을 다시 살피다 보면, 그 결론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III. 세상과 육의 대적

처음 두 절을 읽을 때 대적의 주제가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저항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복음에 대한 저항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현실을 이 편지 전반에서 다루고, **6**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전투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에베소는 지극히 음란하고 불경한 도시였습니다. 아르테미스(다이애나) 신전이 있었고, 주술과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말할 때(비유일 수도, 실제 원형경기장 투입일 수도), 최소한 폭도들의 폭력에 시달렸다는 뜻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그 도시의 주술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 줍니다. 심지어 교회 안의 신자들조차 매우 높은 가격의 주술 책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 믿음이 자라며 그것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교회가 사악한 이방 세계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선과 충성, 그리고 궁극적 예배를 빼앗아 가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에베소 교회만큼이나 이 싸움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IV. 하나님 아버지의 압도적인 은혜

2절은 사도적 인사의 전형입니다. 초기 교회 이래로 목회자들이 예배 시작에 선포해 온 바로 그 인사와 결이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배에서 이 인사를 선포하는 의미는 바울이 편지 서두에 이 인사를 적은 의미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하나님과의 화평)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부름받은 예배의 시작에 이 인사로 시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에베소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자비와 사랑,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영광스러운 실제로 넓히고, 정의하고, 적용합니다. 바울이 **1-3**장에서 가장 걱정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송영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안의 구원에 달려 오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에 대해 들뜨기를 원하지, 지루해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조금 관심 갖는 정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망,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풍성한 유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그분을 따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심지어 부당한 고난도 인내로 기꺼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흥분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거나 할 수 있느냐에 근거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흥분할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실한 믿음과 섬김으로 밀어 올릴 것입니다. 아멘.